

[2019년 지방직 9급 국어 영역별 출제 현황]

대단원	소단원	문항 수
문 법	음운론	1
	문장론	1
	의미론	2
	어문 규정	2
	소 계	6
어 휘	한자 성어	1
	한자어	1
	소 계	2
비문학	사실적 독해	4
	추론적 독해	2
	독서 화법 작문	2
	소 계	8
문 학	현대 문학	2
	고전 문학	2
	소 계	4
합 계		20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 ① 성공(成功) : 실패(失敗)
- ② 시상(施賞) : 수상(受賞)
- ③ 판매(販賣) : 구매(購買)
- ④ 공격(攻擊) : 방어(防禦)

정답 ①

[정답 풀이]

의미가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단어들을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러한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한다. 단어들이 반의 관계를 이루려면,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공통적이어야 한다. 반의어의 종류에는 '상보 반의어', '정도 반의어', '방향 반의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향 반의어'는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우의 반의어를 이른다. ① '성공'과 '실패'는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양분하는 '상보 반의어'이므로 제시된 설명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시상(施賞) : 수상(受賞)', ③ '판매(販賣) : 구매(購買)', ④ '공격(攻擊) : 방어(防禦)' 등은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 반의어이다.

✦ [정채영 국어 문법] 166쪽 반의어의 종류

[더 알아보기] 반의어의 종류

1. 상보 반의어: A의 부정이 B가 되고 B의 부정이 A가 되는 반의어이다.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양분하여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없고 비교 표현도 불가능하다.

예) 남자 - 여자, 기혼 - 미혼, 죽다 - 살다, 참 - 거짓, 있다 - 없다, 합격하다 - 불합격하다 등

- ▶ 갑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중간 상태x).
- ▶ 갑은 매우 남자이다(부사 수식x).
- ▶ 갑은 을보다 더 남자이다(비교 표현x).

2. 정도(등급) 반의어: 두 단어 사이에 정도나 등급이 있어서 대립되는 반의어이다. 두 단어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으므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고, 비교 표현도 가능하다.

예) 길다 - 짧다, 덥다 - 춥다, 쉽다 - 어렵다

- ▶ A는 매우 길다(부사 수식○).
- ▶ A는 B보다 더 길다(비교 표현○).

3. 방향(대칭) 반의어: A의 부정이 반드시 B가 되지 않고, B의 부정이 반드시 A가 되지 않는 반의어이다.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

예) 공간적 관계: 위 - 아래, 앞 - 뒤, 오른쪽 - 왼쪽

- 이동: 가다 - 오다, 사다 - 팔다, 입다 - 뱃다
- 인간관계: 부모 - 자식, 남편 - 아내, 스승 - 제자

문 2.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한다.
-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여 논쟁의 확산을 꾀한다.

정답 ②

[정답 풀이]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자와 반대자가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화법의 한 형태로, 경쟁적 상호 작용의 과정이다.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하고, 둘째,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의 규칙을 미리 알려 주며, 셋째, 논제에서 벗어나면 쟁점을 정리하고, 넷째, 질문과 요약을 통해 토론의 진행을 돕는다.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토론의 사회자가 논제의 타당성 여부를 토론자에게 묻는 것은 토론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다.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다.
- ③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은 쟁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논제에서 벗어나 있을 때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는 것은 토론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다. 토론 사회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 [정채영 국어 비문학] 26쪽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

[더 알아보기]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

사회자	•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함. •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의 규칙을 미리 알려 주며, 논제에서 벗어나면 쟁점을 정리해 줌. 예) 오늘의 토론 논제는 '안락사는 정당인가?'입니다. 오늘 토론은 고전적 토론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 질문과 요약을 통해 토론의 진행을 도움. 예) 지금 찬성 측에서는 계속 반대 측 통계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토론자	• 자기의 주장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말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상대방의 논박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변호함. • 토론 규칙을 지키고,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윤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삼가고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짐. 예) 지금까지 찬성 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에게 질문 있습니다.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의 선택권이 환자 자신에게 있는지, 환자 가족에게 있는지의 여부라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 중	• 객관적인 입장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발언을 듣고, 논거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을 평가함. • 주장의 일관성, 토론 규칙의 준수 여부를 살펴 토론자를 평가함.

문 3.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멕시코의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과드리리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만 1,497만 3,900 ha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된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소고기들은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 ①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정답 ①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앞부분에서 숲의 25 %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고,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 단지로 점유되었으며, 1,497만 3,900 ha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다고 하여 환경 파괴의 현황을 수치 정보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 수치를 근거로 활용하였을 뿐, 이론적 근거를 나열한 부분은 없다.
- ③ 제시된 글에서 전문 용어의 뜻을 풀이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축산화로 인한 열대 우림의 파괴 현황을 나열한 것이다.

문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 ③ 하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인다.
-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인사말’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이다. ‘인사’와 ‘말’이 결합할 때에 [인산말]로 발음되지 않고 [인사말]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첨가하지 않고 ‘인사말’로 적는다.

[오답 풀이]

- ① 노래말(x) ⇨ 노랫말(o): ‘노랫말’의 표준 발음은 [노랜말]이며, ‘노래’와 ‘말’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므로 ‘노랫말’과 같이 적어야 한다.
- ② 순대국(x) ⇨ 순댓국(o): ‘순대’와 ‘국’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순댓국’의 표준 발음은 [순대국/순댄국]이며,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므로 ‘순댓국’으로 적어야 한다.
- ③ 하교길(x) ⇨ 하굣길(o): 한자어 ‘하교(下校)’와 순우리말 ‘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굣길’의 표준 발음은 [하 : 교길/하 : 곧길]이며,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므로 ‘하굣길’로 적어야 한다.

✦ [정채영 국어 문법] 248쪽 사이시옷의 표기

[더 알아두기] 사이시옷의 표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고랫재	곶밥	나룻배	나뭇가지	넋가
	댓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못자리	바닷가	벧길	벧가리	부싷돌
	선짓국	씻조각	아랫집	우렁이속	잇자국
	젓더미	조갯살	찻집	첻바퀴	킷값
	핏대	헛별	헛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터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갯목	넋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ㄹ’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갯벌	뒷울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갯잇	웃잇	갯잎	나뭇잎	댓잎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곶병	머릿방	뱃병	봣득	사갯밥
	셋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찻종	춧국	곶병	땃줄	땃세
	핏기	헛수	헛가루	헛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갯날	제삿날	훗날	땃마루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ㄹ’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땃간(退間) 헛수(回數)

문 5.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반영론은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을 취한 비평적 입장이다.

(나)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 ①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형식을 통해 정제된 시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났군.
- ②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희자적인 삶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 ③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후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
- ④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내는군.

정답 ②

[정답 풀이]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을 현실 세계의 반영으로 보고, 작품에 나타난 현실과 실제 현실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용하는 관점이다. ②에서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한 진술은 문학이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율격’, ‘정형적 형식’ 등 작품의 내적인 언어 구조나 표현 기법을 중시하는 방법은 절대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 ③ ‘시적 분위기’, ‘선경후정’ 등 작품의 내적인 언어 구조나 표현 기법을 중시하는 방법은 절대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 ④ ‘이미지’, ‘감각’ 등 작품의 내적인 언어 구조나 표현 기법을 중시하는 방법은 절대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 [정채영 국어 문학] 49쪽 박목월 나그네

[더 알아두기]

1. 문학 이해의 관점

- 내재적 관점 — 절대주의적 관점: 작품 자체의 구조
- 외재적 관점 — 표현론: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
- 반영론: 작품과 현실 세계와의 관계
- 효용론: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

2. 박목월, 「나그네」

이 시는 외줄기로 나 있는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유희자적(悠悠自適)하게 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한 체념과 달관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민요적 가락인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이 명사로 끝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간결한 느낌을 주고 시상을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여기서의 ‘달’은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달관의 경지에 이른 존재를 의미하는 함축적인 시어이다.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①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다.
- ② 반가운 벗과의 독어야말로 진정한 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
- ③ 시대와 불화(不和)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다.
- ④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우(交友) 관계가 중요하다.

정답 ①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먼저 글을 읽고, 필자를 읽고, 필자의 환경을 읽은 후 마지막으로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독서가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책’을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에 비유하였을 뿐, ‘반가운 벗과의 독서’에 대해 진술한 것은 아니다.
- ③ 책을 읽어서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을 뿐 시대와의 불화(不和)에 대해 진술한 것은 아니다.
- ④ 이 글의 핵심 정보는 ‘독서의 중요성’이다. ‘친밀한 교우(交友) 관계의 중요성’이 아니다.

문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 ③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② 옛 책을(○):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 조사는 독립성이 없어서 다른 단어와는 달리 앞말에 붙여 쓴다. 이러한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관형사 ‘옛’과 명사 ‘책’을 띄어 쓰고, 조사 ‘을’을 앞말에 붙여 쓴 것은 바르다.

[오답 풀이]

- ① 그 ∨ 중에(×) ⇨ 그중(○):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를 뜻하는 말인 ‘그중’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바르다. ‘에’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③ 한 ∨ 번(×) ⇨ 한번(○): 1회를 뜻하는 것이라면 ‘한 ∨ 번’으로 띄어 쓰고, ‘지난 어느 때나 기회’,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기회 있는 어떤 때에’,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일단 한 차례’라는 뜻으로 쓸 때는 ‘한번’으로 붙여 쓴다. ‘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같이 갑시다.’라는 문장에서의 ‘한번’은 ‘기회 있는 어떤 때에’를 뜻하는 부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④ 굴 ∨ 속으로(×) ⇨ 굴속으로(○): ‘굴의 안’을 이르는 말인 ‘굴속’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조사 ‘으로’도 앞말에 붙여 쓴다.

문 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가을일[가을릴]
- ㉡ 텃마당[툃마당]
- ㉢ 입학생[이팍쌩]
- ㉣ 흙먼지[흙먼지]

-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

[정답 풀이]

㉢ ‘입학생’의 표준 발음은 [이팍쌩]이다. ‘입학’은 자음 축약에 의해 [이팍]으로 발음되고, ‘생’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음화에 의해 [이팍쌩]이 된다.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는 ‘ㅣ/ㅅ/ㅎ/ㅏ/ㄱ/ㅅ/ㅎ/ㅇ’으로 8개이고,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는 ‘ㅣ/ㅍ/ㅏ/ㄱ/ㅅ/ㅎ/ㅇ’으로 7개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 ‘가을일’의 표준 발음은 [가을릴]이다. ‘가을’과 ‘일’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 [가을닐]이 되고, 유음화에 의해 [가을릴]이 되어 ‘첨가’와 ‘교체’ 두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 ‘텃마당’의 표준 발음은 [툃마당]이다. 순우리말 ‘터’와 순우리말 ‘마당’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ㄴ’ 소리가 덧나는 ‘첨가 현상’에 해당한다. /ㄴ/의 조음 위치는 치조음이고 /ㅁ/의 조음 위치는 양순음이므로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 ‘흙먼지’의 표준 발음은 [흙먼지]이다. ‘흙’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흑]이 되고 [먼지]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비음화가 일어나 [흙먼지]가 된다. ㉣을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탈락’과 ‘교체’이다.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이 음운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규칙이 적용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정채영 국어 문법] 48쪽 음운 변동의 종류

[더 알아두기] 음운 변동의 종류

1. 교체(대치): 어떤 음운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2. 축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결합되어 바뀌는 것 ⇨ 자음 축약, 모음 축약
3. 탈락: 두 음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 ⇨ 자음군 단순화, 자음 탈락(‘ㄹ’ 탈락, ‘ㅎ’ 탈락), 모음 탈락(‘ㅡ’ 탈락, ‘ㅏ/ㅑ’ 탈락)
4. 첨가: 음운이 새로 생겨 덧붙는 것 ⇨ ‘ㄴ’ 첨가, 반모음 첨가

문 9.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 ②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 ③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 ④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정답 ①

[정답 풀이]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일 때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쓴다. ‘-ㄹ’은 추측, 예정, 의지, 가능성 등 확정된 현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이 문장을 ‘접수될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이 문장의 주어는 ‘교부는’인데 서술어 ‘교부한다’와 호응하지 않는다. 주술 호응에 문제가 있고 ‘교부’가 중복되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③ 이 문장에서 서술어인 ‘제외되다’는 ‘수역을’과 호응하지 않는다. ‘제외되다’는 ‘무엇에서 제외되다’처럼 부사어와 호응하는 동사인데, 이를 타동사처럼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역을’이라는 목적어와 호응하는 서술어 ‘제외하다’를 사용하여 ‘수역을 제외함’으로 수정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④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는 서술어 ‘열람하게 한다.’를 쓰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이 문장은 ‘관계자에게’가 부사어이므로 ‘열람하게 하다’와 같은 서술어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열람하다’라는 서술어가 사용되어 오류가 발생하였다. ‘열람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누가 무엇을 열람하다’처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사어인 ‘관계자에게’와 호응하려면 ‘열람한다’를 ‘열람하게 한다’로 고쳐야 한다.

✦ [정채영 국어 문법 종결자] 508쪽 공문서 바로 쓰기

[더 알아두기] 공문서 바로 쓰기

- 관계 도서는 시·군 민원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관계 도서는 시·군 민원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한다.
-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합니다.
⇒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합니다.
- 시험 희망자는 서류를 속히 접수(接受)하세오.
⇒ 시험 희망자는 서류를 속히 제출(提出)하세오.
- 이 제도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
⇒ 이 제도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
- 이번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이루어졌다.
⇒ 이번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이루어졌다.

[오답 풀이]

① (가): 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A[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B[나도 고인(古人) 못 뵈]-B[고인(古人)을 못 뵈도]-C[녀던 길 알쩍 잇네]-C[녀던 길 알쩍 잇거든]-D[아니 녀고 엇덜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쇄법을 활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가)는 이항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중 <언학(言學)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제는 ‘학문 수양의 길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이다.

③ (다): “우레긋치 / 번기긋치 / 비긋치 / 구름긋치”에서 ‘긋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작자 미상의 시조이다.

④ (라): ‘냉소적 어조’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정서적 태도나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며 비웃는 말투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내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냉소적 어조를, “벗님네 웃디들 말구려 아귀 썩여디리라(벗님네들이여 웃지들 말구려. 입이 썩어질 것이니라.)”에서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권섭의 시조로 어이없는 세상에 대한 풍자가 주제이다.

✦ [정채영 국어 문학] 26쪽 연쇄법 - 이항 도산십이곡

[더 알아두기] 현대어 풀이

(가) 술은 어찌하여 좋은가? 누룩을 섞었기 때문이다.
국은 어이하여 좋은가? 소금을 넣어 음식의 간을 알맞게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 음식의 원리를 아시면 나라를 다스림에 만수무강하오리다.
(나) 옛 성현도 날 못 보고 나 또한 성현을 뵈지 못하네.
성현들을 못 뵈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아니 가고 어찌할 것인가?
(다) 우레같이 소리 나는 임을 번개같이 번뜻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 (사랑을 주고받고)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 가운데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는구나.
(라) 하하 허허 하고 웃은들 내 웃음이 진정한 웃음인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느끼다가 그렇게 된 것을.
벗님네들이여 웃지들 말구려. 입이 썩어질 것이니라.

문 10.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알쩍 잇네
녀던 길 알쩍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나) 술은 어이하여 도흐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하여 도흐니 염매(鹽梅) 툔 타시러라
이 음식 이 뜯을 알면 만수무강(萬壽無疆)호리라
(다) 우레긋치 소리나는 님을 번기긋치 번뜻 만나
비긋치 오락가락 구름긋치 헤어지니
흉중(胸中)에 브름긋튼 한숨이 안기 피듯 호여라
(라) 하하 허허 혼들 내 우음이 정 우움가
하 어척 업서서 느기다가 그리 되게
벗님네 웃디들 말구려 아귀 썩여디리라

- ① (가): 연쇄법을 활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문답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 ③ (다): ‘긋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있다.
- ④ (라):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나)의 “술은 어이하여 도흐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술은 어찌하여 좋은가? 누룩을 섞었기 때문이다.)”에서 문답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술은 어이하여 도흐니(술은 어찌하여 좋은가?)~ / 국은 어이하여 도흐니(국은 어이하여 좋은가?)~”에 나타난 표현 기법은 대조법이 아니라 대구법이다. 대조법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맞세워 강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대조법을 활용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나)는 윤선도의 시조로 임금이 훌륭한 신하의 보필을 잘 받아야 만수무강할 수 있다는 주제를 술과 누룩의 관계, 국과 소금의 관계로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문 11.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살다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 ① ㉠: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 ② ㉡: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 ③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 ④ ㉣: 그렇게 세계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라는 문장에서 ‘살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진다.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는 의미의 ‘살다’가 쓰인 문장으로는 “어렸을 때 배운 노래 한 구절이 머릿속에 아직도 살아 있다.”를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②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④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정채영 국어 문법] 156쪽 다의어 ‘살다’

[더 알아두기]

1.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1)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하나의 소리에 서로 관계가 없는 의미가 여럿이 결합되었을 때, 이와 같은 관계를 ‘동음이의 관계’라 하고, 이와 같은 단어를 ‘동음이의어’라 한다. 이들은 우연히 소리가 같을 뿐, 소리에 담긴 의미들은 서로 관련이 없이 사전에 별개의 단어로 실린다.

- 배 1 예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복부)
- 배 2 예 나는 사과보다 배를 더 좋아해.(과일)
- 배 3 예 이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돼.(선박)

(2) 다의어

하나의 어휘가 둘 이상의, 다르면서도 서로 연관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이들을 다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어휘들을 다의어라고 하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휘들은 다의어이다. 이들은 의미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며, 한 낱말이 주변 의미로 인해 의미가 많아진 것이다. 따라서 문맥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 ⇒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 서고 걷고 뛰는 일 따위를 말아 한다.
- 책상다리가 부러졌다.
 - ⇒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 그것을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
- 농구를 하다가 안경다리를 부러뜨렸다.
 - ⇒ 안경의 테에 붙어서 귀에 걸게 된 부분

2. 다의어 ‘살다’

- 생명을 지니고 있다. 예 그는 백 살까지 살았다.
-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
 - 예 잿더미에 불씨가 아직 살아 있다.
-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
 - 예 그 시는 한 구절로 전체가 살았다.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 성질이나 기운 따위가 뚜렷이 나타난다.
 - 예 칭찬 몇 마디 해 주었더니 기운이 살아서 잘난 척이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난다.
 - 예 어렸을 때 배운 노래 한 구절이 머릿속에 아직도 살아 있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예 그렇게 세계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
- 경기가 놀이 따위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예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 바둑에서 간신히 두 집 내고 살았다.
- 글이나 말, 또는 어떤 현상의 효력 따위가 현실과 관련되어 생동성이 있다.
 - 예 산 역사 / 산 교훈 / 살아 있는 규범
-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 예 고래는 물에 사는 짐승이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예 벼슬을 살다. / 교통사고로 2년 형을 살다.
- 어떤 생활을 영위하다.
 - 예 아버지는 평생 구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신다.
-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
 - 예 지금의 아내와 살게 되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다.

문 12.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 행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홍 교수: 네, 반갑습니다.

진 행 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홍 교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진 행 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홍 교수: 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2014년에는 9.0%였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 행 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차량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 행 자: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홍 교수: 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 행 자: 취지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홍 교수: 일회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 행 자: 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당시에만 교통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는 말씀이군요.

홍 교수: 네. 이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 행 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다.
- ②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한다.
- ③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 ④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정답 ①

[정답 풀이]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서 홍 교수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진행자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홍 교수가 제시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듣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한 부분에서 진행자 나름대로의 해석이 나타나 있다.

③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진행자는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라고 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④ 진행자는 “취지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라고 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문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biological inheritance)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social acquisition)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 ①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 ②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 ③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 ④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정답 ④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진보]
 2.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구분하였다.[진보]
 3.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견해는 생물학적 유전인 '진화'와 사회적 획득인 '진보'를 혼동한 것이다.[진화와 진보]
 4. 오늘날에는 그 둘(진화와 진보)이 분명히 구별된다.[진화와 진보]
- 따라서 이 글의 핵심 정보는 '진보와 진화'이고 제목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정보는 나와 있지만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는 나와 있지 않다.
- ② 다윈이 생물학적 유전인 '진화'와 사회적 획득인 '진보'를 혼동하였다고 하였을 뿐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③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동일하다고 본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고, 역사와 자연을 구분한 것은 헤겔이다. 하지만 이것은 세부적인 정보일 뿐, 글 전체의 제목이 될 수는 없다.

[정답 풀이]

세 번째 문단에서 유 소사는 “남편의 뜻을 어기오지 말면 장부(丈夫) 비록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하라?”라고 하여 남편의 뜻을 잘못이 있더라도 따르겠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사씨는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 아버지께 간(諫)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 있고 형제(兄弟) 서로 권하고 봉우(朋友) 서로 책(責)하니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간쟁(諫諍)’이란 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히 말하는 것이므로, 사씨가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오답 풀이]

- ① 사씨의 어머니가 사씨를 보낼 때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라고 했다는 부분에서 남편을 따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사씨가 “첩(妾)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자모(慈母)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라고 말한 것은 겸손의 태도일 뿐,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유 소사는 며느리를 조대가에 비유하여 사씨의 뛰어난 학식과 높은 덕망에 흠족해 하고 있다. 효성을 화제로 대화한 것이 아니다.

[더 알아두기] 김만중, ‘사씨남정기’

사씨남정기는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양반 사대부인 유한림의 가정에서 벌어진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치밀한 구성과 섬세한 심리 묘사로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었으며, 후처의 모략으로 고생하던 본처가 남편과 재회하여 행복하게 살고 후처는 처형당한다는 내용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 소사가 말하기를, “신부(新婦)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꼬?”

사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妾)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자모(慈母)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어미 첩을 보낼 제 중문(中門)에 임(臨)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경경(耿耿)하여 귓가에 있나이다.”

유 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기오지 말면 장부(丈夫) 비록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하라?”

사씨 대 왈,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 아버지께 간(諫)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 있고 형제(兄弟) 서로 권하고 봉우(朋友) 서로 책(責)하니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 그리하나 자고로 장부(丈夫) 부인(婦人)의 말을 편청(偏聽)하면 해로움이 있삽고 유익(有益)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

유 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時俗) 여자가 미칠 바리오.”라고 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에서 —

* 조대가: 『한서(漢書)』를 지은 반고(班固)의 누이동생인 반소(班昭).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왕실 여성의 스승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 ①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유 소사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사씨의 모습에 흠족해 하고 있다.

정답 ③

문 15.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무레한 초여름 기운에 잠겨 있었다. 집은 전적으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팡 당 팡 당.

먼 어느 곳에서는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불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밀 거리의 철공소나 대장간에서 벌겋게 단 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는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굉장히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팡 당 팡 당.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쭈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거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리까…….”

정애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

정애는 표정으로만 수궁을 했다.

팡 당 팡 당.

그 쇠불이에 쇠망치 부딪치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바깥의 선들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 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

— 이호철, 「닿아지는 살들」에서 —

- ①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 ② ‘팡 당 팡 당’ 소리는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 ③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 ④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리의 여운'은 늙은 나무들을 흔들리게 하고,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흔들리게 하는 것과, 쪼개고 있는 것은 모두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소리의 여운'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첫 부분에서는 늙은 나무들이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낸다고 하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늘한 소리'의 근원이 '바람'이 아니라 '소리의 여운'이라고 하였으므로 '서늘한 소리'와 '깡 당 깡 당' 소리는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② '깡 당 깡 당'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라고 한 부분에서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함을 알 수 있다.

③ 글의 중간 부분 "단조로운 소리가면서 송곳처럼 쑺시는"과, 글의 마지막 부분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을 통해 '단조로운 소리'를 '송곳'이나 '비수'에 빗대어 '고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채영 국어 문학] 165쪽 이호철, '달아지는 살들'

[더 알아보기] 이호철, '달아지는 살들'

이 소설은 북으로 시집을 간 큰딸을 온 가족이 저녁 무렵부터 12시까지 기다리는 것을 주요 모티프로 삼아 이산가족의 슬픔과 소시민의 정체된 삶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가족들은 누이를 북에 남겨 둔 이산가족이면서,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에 갇혀서 누이를 기다리는 폐쇄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특정한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물들이 주고받는 단절된 대화나 비정상적인 가족들의 관계,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리는 쇠소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가족들이 12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12시'는 하루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매일매일 이 일이 순환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매일매일 순환되는 12시를 향한 '기다림과 기다림의 좌절, 그리고 다시 기다림을 재촉하는 쇠소리의 구조 속에서 가족들의 유대감은 파괴되어 왔고 제목 그대로 '살이 달아 버리는' 고통 속에 있게 된다.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나는 <일 포스티노>를 세 번쯤 빌려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이 문학이 파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나는 종종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한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수차례 무릎을 쳤을 것이다.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여기서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라면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이 이르면 은유는 절정에 달한다. 더 이상의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 ① 영화 <일 포스티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
- ② 영화 <일 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
- ③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참고할 만하다.
- ④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 <일 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2문단에서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영화 <일 포스티노>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은유의 출발'과

'은유의 확장' 그리고 '은유의 절정'이 잘 표현된 장면을 담고 있다는 것은 글쓴이의 해석이므로, 영화 속 인물들이 문학적 은유를 잘 알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영화의 인물들이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글의 정보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영화 <일 포스티노>가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는 것은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참고할 만하다는 것은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④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 <일 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이 문학이 파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문 17. 다음 ()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학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인데다 가히 ()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 ① 花朝月夕
- ② 韋編三絶
- ③ 天衣無縫
- ④ 莫無可奈

정답 ③

[정답 풀이]

제시된 글에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라는 부분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는 '天衣無縫(천의무봉)'이다. '天衣無縫(천의무봉)'은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는 뜻으로,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 ① 花朝月夕(화조월석):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이라는 뜻으로, 경치가 좋은 시절을 이르는 말.
- ② 韋編三絶(위편삼절):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읽어 책의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책을 열심히 읽음을 이르는 말. <사기>의 <공자세가(孔子世家)>에서 유래한다.
- ④ 莫無可奈(막무가내): 달리 어찌할 수 없음.

✦ [정채영 국어 어휘] 311쪽 한자성어

문 18.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그는 여러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세(有名勢)를 치렀다.
-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었다.
-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정답 ①

[정답 풀이]

유명세(有名勢)(x) ⇨ 有名稅(있을 유, 이름 명, 세금 세)(○):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

[오답 풀이]

- ② 福不福(복 불, 아니 불, 복 복): 복분(福分)의 좋고 좋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
- ③ 對症療法(대할 대, 증세 증, 병 고칠 요, 법도 법):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 열이 높을 때에 얼음주머니를 대거나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리게 하는 따위가 이에 속한다.
- ④ 經緯(경서 경, 씨 위): 직물(織物)의 날과 씨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일이 진행되는 과정.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쳐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등 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본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농업 르네상스 시대의 재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농업은 자원 순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땅의 생산력에 기초해서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地緣)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 ①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하였다.
- ②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 ④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전 성과를 수용하는 것과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의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한 적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2문단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와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2문단의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다는 부분을 근거로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仁)의 근본이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①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 인간관계이다.
- ②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 ③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다.
- ④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이다.

정답 ③

[정답 풀이]

3문단에서 “유교의 기본 입장은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하였다. 또 4문단에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라고 하였고,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 진술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효를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행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글쓴이는 효를 ‘일차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일차적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 ②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으므로, 효가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고 하였을 뿐,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라고 하지는 않았다.

문 20.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효(孝)가 개인과 가족, 곧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忠)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